

U.S. Daily Briefing

문의 : 워싱턴무역관(seogil.chang@kotra.or.kr)

2023.12.22.(금) 제23-138호

◆ [Focus] 2024년 미-중 관계 키워드, '대만·美 대선·디리스크' 선정

◆ [What's News]

- (반도체) 美 상무부,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조사 착수 예정
- (규제) 중국, 희토류 가공 기술 해외 수출 금지 발표
- (관세) 바이든 행정부, 전기차 등 중국산 제품에 관세 추가 인상 검토
- (철강) 백악관, 일본 제철-US Steel 인수 거래 검토에 동의

◆ [Top Headlines] 주요 언론사 오늘의 헤드라인

FOCUS

(미중관계) 2024년 미-중 관계 키워드, '대만·美 대선·디리스크' 선정

1. 개요

□ '24년 미중관계, 3대변수는 대만 선거·美 대선·디리스크(로이터)

- 대만 선거, 美 대선, 디리스크(de-risking) 등의 정치·경제적 변화가 상호 보완적인 미-중 무역 관계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
 - (대만 선거) 대만 총통선거는 친미 성향의 '민진당'과 친중 성향의 '국민당' 대결 양상으로, 선거 결과에 따라 대만의 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전망
 - (미국 대선) 美 대선 결과에 따라 대중 무역 제재의 변화와 압박 정책의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미-중 관계에 영향을 줄 변수로 작용
 - (디리스크) 미국의 '디리스크'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 기술 패권 경쟁으로 인해 미-중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

2. 주요내용

□ 대만 총통선거, 내년 미·중 관계 재조정할 핵심 변수

- 친미 성향의 '민진당'과 친중 성향의 '국민당' 대결 양상으로, 선거 결과에 따라 미·중 관계 '현상 유지' 또는 '대립 심화'로 전개될 전망
 - (민진당) 라이칭더 후보(12월 지지율 35.1%) 당선 시 미국은 대만의 안보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분석, 현재 정책 기조 유지
 - (국민당) 허우유이 후보(12월 지지율 32.5%) 당선 시 중국은 대만을 통해 미국의 대중 제재 우회 가능성 제기, 미국의 대만 영향력 약화할 전망

< 대만 총통 후보의 지지율 추이 (단위: %) >



[자료: 대만민의를기금회]

□ 美 대선, 중국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에 촉각

- 미국 대선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와의 재대결이 예상되며, 대선 결과에 따라 미·중 정책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
 -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 무역정책은 △동맹국과의 공조 통한 中 견제, △대중 무역 제재 강화 등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
 - 트럼프는 차기 대선 핵심 전략으로 무역정책 2.0 제시, 중국 최혜국 대우 중단, 중국 외주 기업의 조달 기회 박탈 등 고강도 대중 디커플링 예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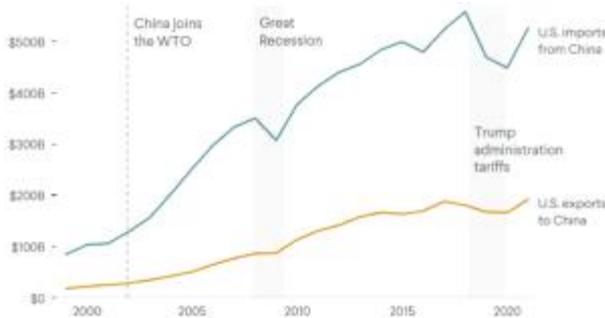
□ 디리스크, 한층 강화될 美 규제를 두고 중국은 대응책 마련 부심

- 미국은 디리스크 정책을 통해 향후 글로벌 산업 공급망, 차세대 첨단 기술, 군사안보 영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점차 억제할 것으로 전망
 - 미국은 '23년 10월 기존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, '24년 추가 규제를 예고하는 등 중국의 첨단 기술 접근 차단을 위한 제재 본격화
 - 중국은 디리스크에 맞서 자국의 첨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, 핵심 원료 수출을 통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

3. 현지 반응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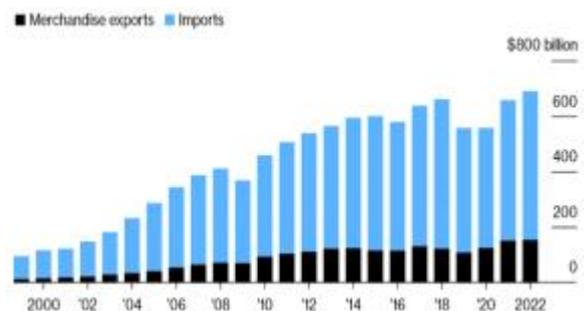
- 미-중 양국 간 완전한 경제 분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, 디리스크가 시장에 미칠 역효과를 우려하는 시각이 병존
 - 상품 교역 등 양국의 완전한 경제적 분리는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있으며 미-중 무역은 앞으로도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
 - IMF는 디리스크 정책에 따른 리쇼어링과 프렌드쇼어링으로 인한 성장둔화가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
 - 또한, 디리스크으로 인한 △기업 경쟁력 약화, △국가 간 마찰 유발 가능성, △단일시장 분열 등 잠재적 리스크 가능성 제기

< 지난 20년간 미-중 무역 변화 추이 >



- * 미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미중 갈등 이후 15%대 급감
 - ** 지난 20년 간 미중 상품 교역은 증가세
- [자료] 미 경제 분석국

< '22년 미-중 상품 교역 최대치 기록 >



- * '22년 미-중 상품교역 최대치 기록
- [자료] 미 상무부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정연호
■ 자료원	로이터통신(12.20), 월스트리트저널(12.16),

□ [반도체] 美 상무부,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조사 착수 예정

- (개요) 수출통제에서 제외된 레거시 반도체 관련 우려는 지속됨
 - 레이먼드 상무부 장관은 '중국기업의 레거시 반도체 생산 확대가 미국 기업의 경쟁력에 끼칠 영향을 우려'한다고 발언('23.8)
 - 에스테베즈 산업안보부 차관은 '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고 대응할 방안이 존재'한다고 언급('23.10)
- (상세) 산업안보국 조사는 '24.1월 개시, 100개 이상 기업 조사 전망
 - 자동차, 항공우주, 국방 등 반도체를 활용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 내 기업들의 반도체 조달 및 사용 방법이 조사 대상이 될 전망
 - 미국 내 레거시 반도체 시장이 철강, 태양광처럼 중국산 저가 공세로 혼란을 겪을 수 있다고 평가한 美 상무부가 조사 이후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 제기(블룸버그)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준성
▪ 자료원	상무부 보도자료(12.21), 블룸버그(12.22)

□ [규제] 중국, 희토류 가공 기술 해외 수출 금지 발표

- (개요) 中 상무부, '수출 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'에 희토류 추가([12.21](#))
 - 중국은 '22년 기준 약 21만 톤의 희토류 생산, 전 세계 희토류 가공·정제 산업의 90%를 차지함에 따라 강력한 통제권을 보유
 - * 중국은 핵심 광물인 갈륨·게르마늄([8.1](#)), 흑연([12.1](#)) 수출 통제를 발표한 바 있음.

○ (상세) 희토류 포함 핵심 광물 공급망 통제에 긴장감 고조

- 희토류 가공 기술 수출 제한 정도는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, 일부 북미 기업은 에스토니아 등 중국 외 희토류 공급망을 확대할 전망
- 미국·유럽 등 서방 국가에서 추진 중인 핵심 광물 공급망 다양화, 독자적인 희토류 가공 기술 개발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 예상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마민서
▪ 자료원	로이터(12.22), 폴리τικο(12.22)

□ [관세] 바이든 행정부, 전기차 등 중국산 제품에 관세 추가 인상 검토

○ (개요) 미국의 청정에너지 산업 강화 위한 중국 제품 관세 인상 논의

- WSJ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·EV배터리팩·태양광 제품 등 중국 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 인상 검토 중(12.21)
- 백악관 대변인은 “관세 검토는 중국과의 양자 관계에 대한 전략적이고 신중한 목적 기반 접근 방식의 일환” 언급

○ (반응) 바이든 정부, '24년 재선에서 대중 강경 노선 이미지 구축 노력

- 현지 언론은 추가 관세 인상 검토가 현 행정부의 '24년 재선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 노선을 보여줄 수 있지만 저렴한 EV의 미국 시장 접근을 방해해 청정자동차로의 전환이 더 느려질 수 있다고 지적
- 다만, 미국 전기차 또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이 중국산 배터리팩이나 태양광 소재 등을 수입할 경우, 이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

▪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김준희
▪ 자료원	월스트리트저널(12.21), 폴리τικο(12.22)

□ (철강) 백악관, 일본 제철-US Steel 인수 거래 검토에 동의

- (개요) 일본 제철은 총 141억 달러에 US Steel 인수를 발표(12.18)
 - 동맹국 기업의 인수임에도 불구하고, 현지에서는 외국 기업이 상징적인 미국 철강기업을 인수한 것에 대해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공존
- (상세) 백악관, 일본 제철-US Steel 인수 검토 필요성 인정(12.21)
 - 레이얼 브레이너드 국가경제위원회(NEC) 위원장은 '기업 인수가 국가안보와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조사할 필요성에 동의'한다고 언급
 - 두 기업 모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(CFIUS)에 심의를 요청했으며, CFIUS는 조사 후 대통령에게 거래 승인, 시정 조치 또는 불허를 권고
 - 일본 제철-US Steel 거래는 전미철강노조(USW)의 반대와 더불어 美 의회 내 회의적인 기류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증가

■ 작성자	워싱턴무역관 이준성
■ 자료원	백악관 보도자료(12.21), 인사이드 트레이드(12.22)

Top Headlines

언론사	주요 보도내역
The Wall Street Journal	<p>Iranian Spy Ship Helps Houthis Direct Attacks on Red Sea Vessels (이란 첩보선,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을 돕고 있어)</p> <p>이란이 예멘 후티 반군에 실시간 정보와 드론·미사일 등 무기를 지원하는 정황이 포착. 이란 직접 가담 정황 확인 시,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주의 힘을 얻을 수도</p>
The Washington Post	<p>Supreme Court won't expedite ruling on Trump's immunity claim (연방 대법원, 트럼프 면책특권 소송 신속심사 거부)</p> <p>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면책특권 소송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혀. 법정 공방을 11월 대선 이후로 지연시키려 하는 트럼프 진영의 작은 승리</p>
The New York Times	<p>U.N. Security Council Passes Gaza Aid Resolution as U.S. Abstains (안보리, 가자 지원 결의안 채택... 미국은 기권)</p> <p>지난 일주일간의 치열한 협상 끝에 안보리는 가자 지구 민간인을 위한 지원안 채택. 미국의 요구에 따라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내용은 삭제</p>
CNN	<p>New home sales plunged in November (11월 신규 주택 판매 급락)</p> <p>11월 신규 주택 판매는 10월 대비 12.2% 하락. 높은 주택담보대출 이율로 인한 것으로 추정. 최근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이율은 23년만 최대 수준은 7.79% 수준</p>
USA Today	<p>Congress has to dodge another government shutdown in 2024 (2024년, 정부 섯다운 위기를 다시 한번 넘겨야하는 의회)</p> <p>의회는 2023년 두 번의 스탑갭을 통과시켰지만 일부 부처 예산은 임시세출기한이 1월 19일에 만료 예정. 공화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통일되고 있지 않는 상황</p>

* 미국 동부시간 12월 22일 19시 기준

Notice

주요 경제·통상 일정

* 주요 경제통상 일정은 매주 화요일 공개됩니다

□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

◆ 전문가가 읽어주는 경제통상 이슈, **코트라 인터뷰 시리즈** (과거 인터뷰 : [유튜브 KOTRA TV](#))

인터뷰번호	제목	바로가기
코인시-14 (2023.6.30)	 <p>전미자동차연구원(CAR) '앨런 아미사' 대표 인터뷰 자동차 업계를 둘러싼 글로벌 지정학 경쟁과 향후 전망과 미래</p>	
코인시-13 (2023.6.26)	 <p>전 미국 국영부 안보 차관보 '켄드 스티리머' 인터뷰 경제 안보 관점에서 본 글로벌 공급망 재편!</p>	

◆ U.S. Daily Briefing & 싱크탱크 위클리 개편 공지



2024.01.00 (화) 제24-001호
KOTRA 워싱턴 무역관

KOTRA 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은 미국의 주요 경제통상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매주 2회(화/목) 배포합니다.



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

〈주요 내용〉

- 워싱턴 포커스**
 - 제목(예시: 인플레이션 감축법 1주년 주요성과) 2
 - 간략 요약
 - 간략 요약
- 경제통상 동향**
 - (FDI) 美 경제자문위, 미국 FDI의 제조업 집중에 긍정적 전망 분석 4
 - (반도체)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액, 사상 최대치 기록 4
 - (연중동향) 파월 연준의 정책적 접근을 연설 내용 및 현지 반응 5
 - (G20) G20 무역투자장관 회의 종료... 무역 원활화, WTO 개혁 등 논의 5
- 의회법안 동향**
 - (무역) 하원, 1962년 무역확장법 발의 6
 - (중국) 하원, 연세법인의 중국기업 투자제한 법안 발의 6
- 이시각 헤드라인**
 - 언론사 주요 보도내역 7
 -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 8

워싱턴 주요일정

- 1.22(화) 바이든 대통령 연도교서 발표
- 1.23(수) 주요 경제지표 및 통상일정 발표

경제통상 동향

(FDI) 美 경제자문위, 미국 FDI의 제조업 집중에 긍정적 전망 분석

- (개요) '22년 美 외국인직접투자, 컴퓨터·반도체 등 제조업에 집중
- 미국 외국인직접투자 총 금액은 기존과 유사한 수준이나, 3분의 2가 컴퓨터·전자제품·반도체 등 제조업에 집중되어 투자 대상의 변화에 주목
- (상세) 백악관 경제자문위는 제조업의 긍정적인 파급효과 기대
- 자문위는 FDI 총 투자액이 증가하지 않아도 제조업으로의 투자 전환이

• 작성자 | 워싱턴무역관 김준희
• 자료원 | 백악관(8.23), 뉴욕타임스(8.24)

(반도체)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액, 사상 최대치 기록

- (개요)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수입액(6~7월)은 총 50억 달러 기록
- * 23.6 23억 달러, 23.7 26.9억 달러 기록
- 지난해 같은 기간의 29억 달러보다 약 70% 증가한 금액을 기록
- (상세) 잠재적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를 위한 사전 비축으로 해석
- 미국의 대중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통제에 일본(7.24)과 네덜란드(9.1)가 협력하기로 발표, 중국이 대비책을 실천 중인 것으로 예상(FT)
- * 증가한 수입액 중 수출통제 대상인 장비의 정확한 비중은 공개되지 않음
- 기술시장 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(Counterpoint)도 올해 2분기 5대 반도체 제조

주요 내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는 1면

가독성이 향상된 본문

내년부터 “워싱턴 경제통상 브리핑”으로 주 2회(화, 목) 발송됩니다